

# 포피염 증상 및 예방 치료방법

- 재발 심해, 세심한 관찰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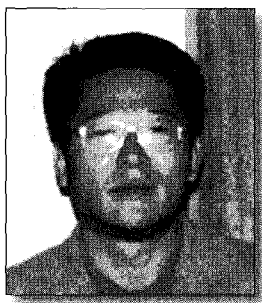
## ■ 사슴의 포피염

사슴에서 포피염의 발생은 주로 나이 먹은 엘크 숫사슴에서 낙각을 전후하여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드디어나 꽃사슴에서는 발생률도 저조하고 증상도 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나이가 적은 2~4

세의 엘크 숫사슴에서도 발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포피염은 연중 발생하나 늦겨울과 봄에 발생이 집중하고 여름과 가을에는 발생빈도가 낮다.

## ■ 포피염의 발생원인

포피염의 발생원인은 신장기능저하에 따른 단백질대사의 불균형, 호르몬의 변화, 단백질결여수준의 부적절, 포피염을 일으키는 헬퍼스바이러스의 감염과 세균의 2차 감염이 주된 발생원인으로 밝



유 일 준 수의사  
(유일동물병원장)

혀졌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단백질을 흡수하고 배출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신장(콩팥)기능이 저하되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이상을 일으켜 신장으로부터 암모니아가 다량으로 배출되고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며

신장의 일부인 부신에서 생산되는 부신피질호르몬의 기능저하로 항병력의 저하가 나타난다. 또한 계절적인 영향으로 숫사슴에서 남성호르몬의 생성이 감소되고 여성호르몬이 증가되면서 신체조직의 변화를 일으켜 낙각도 이루어지나 내병성도 감소하게 된다. 이때 오줌을 통하여 배설된 암모니아가 포피상피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포피에 상처가 남게 되고 상처에 포피염 바이러스가 침입되어 일차적으로 동근 형태의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

포피염 바이러스는 사슴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일단 사슴의 뺏속으로 숨어버려 잠복해 있다가 사슴의 컨디션이 나빠지면 다시 나타나서 포피염을 일으키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포피염 바이러스는 마치 사람들 중 몸이 피곤하면 입가에 물집(수포)이 생기거나 피로가 회복되면 입가에 생겼던 물집(수포) 발생이 없어지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과 똑같다. 이처럼 포피염 바이러스는 발현과 잠복을 반복하기 때문에 완치는 매우 어려운 병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사슴의 컨디션과 호르몬 밸런스의 부조화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하기 때문이며 한번 포피염에 감염된 사슴은 매년 재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포피염 바이러스만으로는 심각한 증상은 일어나지 않으나 발생한

상처에 2차 감염 즉, 세균이 감염되면 염증부위는 포피 내부로 확산됨과 동시에 외부로도 염증이 확산되어 극심한 통증이 발생되면서 포피부위가 부어오르고 농이 흐르기도 하는데 특히 숫사슴에서 낙각후 발생되면 녹용성장이 부진해지거나 지연된다.

### ■ 포피염 발생시 사슴의 증상

1. 배뇨가 시원치 못하고 배뇨시 통증으로 소량씩 배뇨를 하거나 누운 채로 배뇨하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오줌을 흘리기도 한다.
2. 포피부위가 부어오르거나 포피가 약간씩 뒤집혀 외부로 돌출되며 포피부위를 혀로 핥기도 한다.
3. 요석증과 합병되면 요도의 통증으로 인해 뒷다리를 뒤로 빼고 엉덩이에 힘을 주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배합사료의 섭취량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건초나 갈잎은 그런대로 먹는다. 포피염이 더 진행되면 배합사료를 기피하고 음수량도 줄어드는데 낙각이 되어 성장하던 녹용은 생기가 없고 성장이 둔화된다.
4. 증상이 심화되면 포피 끝에 원형의 염증이



▲ 포피염과 뇨석증의 병증으로 41% 정도의 농양이 생긴 사슴

보이고 더 악화되면 포피가 퉁퉁 부어 불룩하게 보이기도 하며 불편해 보이거나 세균의 2차 감염이 심하지 않을 경우 외관상으로 포피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게 통상이다.

5. 포피염바이러스의 감염은 스트레스, 계절변화, 신체와 컨디션 변화, 호르몬 변화의 영향으로 매해 재발될 수 있어 포피가 유착(늘어붙음)되거나 포피 외구가 좁아져 포피내에 오줌이 고이거나 배뇨자체가 불가능해지면 염증은 더욱 악화되고 뇨독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6. 포피염이 있는 사슴은 그 증상이 주로 낙각전이나 낙각후 10~30일 사이에 증상이 극심하게 나타나 녹용성장이 저해되는데 포피염이 발생되면 녹용생산량이 통상 15~40%정도까지 감소될 수 있다.

### ■ 포피염의 예방

사슴의 포피염예방은 세심한 관찰을 통해 배뇨, 사료섭취, 포피부위 관찰, 배뇨자세 등을 통해서 예방될 수 있다.

특히 녹용생산의 극대화를 피하기 위해 단백질원으로 콩, 알팔파 등을 먹일 때 신장기능의 검사가 필요하다.

콩은 열처리되었거나 삶은 것을 먹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콩속에 있는 부정적 인자인 항트립신인자를 제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포피염이 발생하였던 기왕증의 숫사슴

은 낙각전후에 암모니움클로라이드를 강제로 투여하고 부신피질호르몬과 비타민 A와 E를 투여하면 효과가 있다. 또한 숫사슴에게 2월중에 포피를 소독제로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는 것도 권장된다.

### ■ 포피염의 치료

포피염의 치료는 대중요법과 수술요법이 있다.

대중요법으로는 진통제, 식욕촉진제, 소염제 투여 후 포피내외를 소독해주면서 암모니움클로라이드를 강제투약하고 설파제와 비타민 A, E 설파제를 주사해 준다.

증상이 심하거나 여러번 포피염이 재발된 경험이 있는 숫사슴은 포피부위를 절제한 후 봉합해주는 수술적 방법이 있는데 이는 수의사에게 의뢰되어야 한다. 극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의 투약은 제한되어야 한다. 항생제의 투약은 녹용의 생산량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포피염에 관한 자세한 문의와 상담은 011-423-5297로 해주십시오. 사슴사육농가의 번성함을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양돈**